

기고



안방순 담양 119 안전센터 소방위

가슴설레는 봄날 화재예방을 실천하자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풀리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은 항상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겨울이 끝나고 많은 행사가 준비하게 되면서 산이나 야외로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요즘 같은 봄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제일 많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발생률은 봄철 35%, 겨울철 27%, 여름철 21%, 가을철 27%로 사계절 중 봄철에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봄날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억하자 1. 해빙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천의지다. 공사현장은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및 가연성 가스로 인해 대형화재 발생에 항상 취약하다. 특히 추운 겨울철 날씨 탓에 밀린 공정을 서둘러 진행하는 봄철에는 위험물질의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된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물 또는 폭발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작업을 임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부의 정결을 유지

하여 유사시 인명대피 및 진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화재 위험 공사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봄철 산불예방에 힘써야겠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산행을 많이 하는 시기인 만큼, 산에서는 취사행위와 흡연행위를 삼가야겠다. 우리나라는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65%가 산지이며, 이중 97%가 입목지로서, 산불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소도 급속히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무심코 버려진 담배꽂이가 수십 년 가꾸어 온 산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아예 소

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산림 근처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금물이다. 잔잔한 바람에 불씨가 날려가 주택이나 야산에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각종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봄철은 신학기와 아울러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가 많고, 따뜻한 봄기운으로 야외장의 캠핑인구도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교통사고와 캠핑장, 펜션 등에서의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또한 한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야외 행사가 많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축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행사장의 안전점검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불씨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소에도 화재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여 가슴설레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날 더 이상 화재로 인해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기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1+1 안전운전법을 지켜요

현대사회에 있어 차량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로는 신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에 맞춰 움직이면 되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정리(신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차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호체계가 갖추어진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보고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면 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이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직진하는지, 좌회전 및 우회전 하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에 대한 판단을 순간 잘못하거나, 자칫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1+1 안전운전법을 기억해보자. 교차로(+)를 만나면 1(일)단 서행 후, 1(일)단 정지하는 것이다. 그 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이 확보되면 교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1(일)단 서행, 1(일)단 정지에 대한 중요성은 도로교통법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제1항 제1조에 서는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동조 제2항 제1조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상황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다 주의의무가 필요하므로, 1+1 안전운전법을 꼭 기억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김경배(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 봄철 불청객 춘곤증 경계하자

요즘 초저녁으로 기온차는 나지만 어느덧 겨울이 가고 온 산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이른바 꽃피는 춘삼월 봄이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봄은 춘곤증이 몰려오는 운전하기 여간 신경쓰이는 계절이 아닐까 한다. 겨울철에 비해 기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운전 시 시르르 졸음이 오기 딱 좋은 조건이다.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봄이 되면서 겪는 신체변화의 한 현상이나 여기에 따뜻한 기온과 평탄한 도로, 조용한 자동차의 진동은 졸음을 부추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지정제 구간

에서는 그야말로 눈꺼풀이 천근만 근 무거워진다. 운전 중에 춘곤증이 나타나면 주의집중이 안되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 이탈 등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졸음운전과 관련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시속 100km로 운전 하던 중 1초만 졸아도 무려 약 28m를 졸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니 졸음

운전을 가볍게만 볼게 아닌 듯 싶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4 초 동안 눈을 감고 주행할 경우 약 112m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졸음운전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그야말로 수백미터 주행은 한순간이어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그만큼 높다 할 것이다. 순간의 졸음운전이 자칫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춘곤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운행시에는 2시간에 1 회정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좋다. 그래도 운전 중 졸음이 몰려 올 때는 잠시 차를 정차해 두고 토막잠을 청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다면 또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운행하면서 종종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는 한편 껌이나 캔디를 먹으며 짬을 쫓아야 한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운동이나 허리 운동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봄날 장거리 운전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졸음운전이라는 복병이 있음을 잊지 말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호외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